

기독교 교육, 인성교육에 집중해야



손봉호 교수 (대표주간)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기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상이지 현실 아니다. 카이퍼 (Abraham Kuyper)가 꿈꾸었던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아직 세계 어디도, 아무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 혹은 기독교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모두 기독교 교육이라 할 수 없고, 일반 교육에다 ‘기독교 개론’ 혹은 ‘성경’과목 하나 없었다 해서 기독교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기독교적이 되려면 성경적 관점에서 기독교적 교과과정에 따라 피교육자가 그리스도를 닮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세계문화가 그런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19세기까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보편적 진리와 보편적

인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문제는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따르는 것뿐이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기독교나 힌두교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미 발견된 진리를 가르치고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로 훈육하면 좋은 교육이 될 것이고, 아직 발견되지 못한 진리를 발견하면 좋은 연구가 되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19세기까지 정상적인 교육은 그 자체로 기독교 교육이라고 믿은 것 같다.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교에 신학대학이 있었고 심지어 한 두 예외를 제외하고는 신학대학이 없는 학교는 ‘대학교’ (university)란 이름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피선교지에서는 일반교육에다 성경과목 하나 더 하면 기독교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런데 국공립 학교들의 교육이 종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따라서 기독교 교육도 될 수 있다는 전



제에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카이퍼였다. 그런 교육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 아니라 인본주의란 반 기독교적 이념에 입각해 있다고 비판했고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따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목적으로 그는 유럽 최초로 사립대학교인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세웠고 네덜란드의 교육법을 바꿔서 비용은 국가가 감당하되 이념과 내용에서는 기독교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미국은 처음부터 모든 학교는 사립이었고 곧 기독교 학교였다. 지금도 미국에는 국립학교는 없고 주립대학교나 공립학교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그러나 카이퍼의 꿈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기독교 학교의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은 거세게 밀려오는 인본주의 세계관에 함몰되고 말았다. 교육 주도권은 완전히 인본

주의에 넘어갔고 그리스 전통의 지식교육이 모든 교육의 핵심이 되고 말았다. 기독교계는 인본주의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만한 세계관을 형성하기는커녕 그 필요조차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시도한 카이퍼의 후계자들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에도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카이퍼가 큰 꿈을 가지고 세운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조차도 기독교적 이념 보다는 학문적 수월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세속 대학교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교육 내용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도 이뤄지고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미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몇 개의 학교들과 한국의 일부 대안학교들에서 그래도 기독교 교육을 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이다. 그런 시도라도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감사할 뿐이다. 기독교 교육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비록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시도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세속화된 문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선지자적 비판주의'의 한 표현이 아닌가 한다.

비록 기독교 세계관이나 그에 입각한 교육 내용에서는 거의 절망적이라 할 수 있지만 교육 목적에서는 기독교 교육이 가능하고 그 기능과 열매는 매우 소중하다. 비록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품에 관한 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세계관과 교과과정은 제대로 제시된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들은 이미 많이 배출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 프란시스, 칼뱅, 루터, 자비에(Francis Xavier), 링컨, 윌버포스(W. Wilberforce), 손양원, 장기려, 슈바이처, 한경직 같은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자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의한 넓은 의미의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이 되었다. 앞으로도 그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적어도 이런 목표는 기독교 교육이 꾸준히 추구해야 할 것이다. 성경의 기능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딤후 3:16).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지금은 많은 지식, 높은 기술 등 막강한 능력을 갖는 것보다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은 기독교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의 세속 문화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한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서 자연, 사회,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려 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이에 최전방에 서있다. 그 결과로 인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물리적 힘을 갖게 되었고 적어도 일부는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발전은 전적으로 교육에 힘입었다는 사실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인간의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만들며 현대인은 그 때문에 행복한가? 그리고 인류가 축적한 지식과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정말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있는가? 늘어나는 실업자,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 악화되는 생태환경, 인기 영합적인 민주주의 등을 고려하면 낙관적이 되기 쉽지 않다. 사람은 물리적 힘과 물질적 풍요로만 가치 있고 행복할 수 없음을 지금처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때는 없었지 않나 한다. 요즘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제까지의 지식위주 교육에 대한 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오늘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의 인품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기르는 것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가치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기독교 교육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무엇보다 요구된다. 